

특별기고

역대급 괴물폭우로 상처받은 민심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지구의 영향으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많은 비를 뿌렸다. 불과 4일 동안 우리 지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538.7mm(최대 614.5mm, 봉산면)이었다.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라고 한다. 때 이른 폭염에 지쳐가며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역대급 괴물폭우가 폭염에 지친 민심에 큰 상처를 냈다.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2020년 수해 당시 이를 동안의 누적 강수량은 546.9mm(최대 641.5mm, 봉산면)를 기록했고, 인명피해 2명, 도로와 하천, 관광 시설과 주택 등 집계된 피해액 규모는 약 1,1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수해와 비교해도 이번 폭우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지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다. 도로가 침수 되고, 토사가 유실되고, 하천시설이 붕괴되는 등 동시다발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농경지 침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행히도 저지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체제로 전환하며, 피해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2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담양을 포함한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폭우 기간 담양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며, 피해 규모 역시 가장 큰 지역이다. 큰 피해로 망연자실한 군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주는 의미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의료·방역·방제, 세급해택 등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예산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을 의미한다.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폭우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폭염이다. 역대급 폭염과 극한 호우, 기록적인 열대야,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이번 폭우가 재난 예방 시스템, 행정의 대응방식을 혁신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담양군의회 차치행정위원장 이기범 의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신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사랑하자. 사랑이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특히 그렇다. 때문에 중환으로 얽혀져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간은 상대방을 동반자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봤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사랑하자

직까지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더욱더 맑고 고운 사랑이 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줘야 하지 않을까. 기러기들처럼. 그들이 시베리아 별편과 우리나라를 별 무리 없이 오갈 수 있는 것은 상호간에 격려해주는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긴 시간 동안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그들처럼 서로의 지지가 되어주자. 그래서 참살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날은 기계와의 만남이 많아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등 무생물과의 친숙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교류는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랑 나누기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 한 방책으로 "사랑의 파워 기르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존 키오는 "약하고 산만한 생각은 약하고 산만한 힘이 되고, 강하고 집중된 생각은 강하고 집중된 힘이 된다."고 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리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해 가면 그 힘은 세상을 사랑의 꽃밭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인드 파워를 길러야 함은

물론이고, 자고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힘을 발휘해 왔다. 때문에 사랑도 길러내면 그 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 생각부터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도 해야 하고. 그럴수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더더욱, 반복해도 잘 안 되면 긍정적 사고를 시각화하는 노력도 해보자. 그러면서 구체화해 가보자. 강력한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잘 그려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무시해버리자. 그러면서 매일 반복해 가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구체화 되어갈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세상을 사랑이 꽃피는 화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랑 나누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사랑을 해온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에 가속력을 붙여보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꽃피우기 위해서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26분쯤 여주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발화·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화재·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리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 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음력 윤 6월 1일)

- 48년생 건득했던 기대실망으로 끝난다. 60년생 보아지는 부분 예쁜 게 표정 하자. 72년생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짚어볼 수 있다. 84년생 각다하는 불만 마음이 되어 온다. 9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변화를 가져보자.
- 51년생 검고도 도망가면 순해가 배가 된다. 63년생 과거를 지워야 진짜가 보인단다. 75년생 들어서는 안 될 말한 귀로 흘려내자. 87년생 공들인 만큼의 대가를 받아보자. 99년생 똑똑하다 방심 경쟁에서 뒤쳐진다.
- 54년생 맛있는 무대에서 기량을 뽐내보자. 66년생 배우는 공부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 78년생 열심히 해야 하는 게 가미된다. 90년생 강동과 기쁨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02년생 갈반은 성격표 박수는 덤으로 온다.
- 57년생 가래나 흉경분위기를 맞춰보자. 69년생 재미없는 논쟁 시간 낭비해야 한다. 81년생 전폭적인 지지 날개가 달려간다. 93년생 울음이었 던 얼굴 웃음이 다시 온다. 05년생 용기 있는 행동 경의 편에서야 한다.

- 49년생 따가웠던 시선 응원으로 돌아온다. 61년생 가진 과정 재고 꽃 길을 걸어보자. 73년생 손소리 지적을 이쁘게 받아내자. 85년생 달리 없던 방법 목욕탕 할머니가 97년생 두둑한 주머니가 문은 최고로 간다.
- 52년생 안심되고 기특한 선물을 받아보자. 64년생 심각한 고민에 저울질을 더해보자. 76년생 남만은 시차다. 강함을 지켜내자. 88년생 흥만지 쓰는 노동기치를 더해준다. 00년생 갈고뒤는 실력 훈수까지 들 수 있다.
- 55년생 술잔이 높아지는 축하를 받아보자. 67년생 반기운 손님이 선물까지 들고 온다. 79년생 사랑인가 싶은 만남을 가져보자. 91년생 부족한 건 사실 차선으로 돌아서자. 03년생 좋다 하는 표현 아낌없이 해야 한다.
- 58년생 필요했던 순간 지갑을 열어보자. 70년생 경사가 겹치니 출사위 절로 난다. 82년생 자존심도 명예도 땅으로 묻어내자. 94년생 믿는 구석이었다. 배뺏을 크게 하자. 06년생 거침없는 청춘 불꽃이 문에 도전하자.

- 50년생 공한 속도 나누는 시구가 되어보자. 62년생 통쾌한 승리 전리품을 챙겨보자. 74년생 난감하고 파곤한 부딪히 들러온다. 86년생 지름길은 없다. 걸음은 걸어보자. 98년생 부딪히고 깨지고 강이 바다로 간다.
- 53년생 원하던 목표가 눈으로 보여진다. 65년생 지켜보는 입장 간섭도 금물이다. 77년생 경제적인 기반 차곡차곡 쌓아간다. 89년생 초라할 수 있어도 진심만 보여주자. 01년생 별고운 이야기 추억이 만들어진다.
- 56년생 군기 반장 역할 무서움을 보여주자. 68년생 신나고 살리는 계인을 들어보자. 80년생 재촉 결음으로 반기지 대안하자. 92년생 허전했던 연백 살림이 채워진다. 04년생 고하게 하는 결정 주위 담지 못한다.
- 47년생 새로운 친구들 관계가 든든해진다. 59년생 성실한 번영 가절임을 찾아내자. 71년생 대충 하는 약속 신뢰를 잃어야 한다. 83년생 빛나는 존재감 계급이 달라진다. 95년생 자기 인기 주인공이 되어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